



투쟁하는 모성 조화순 2

조 화순이 만난 동일방직의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 3교대 근무, '새벽 6시에 시작하는 조면 5시에 아침밥 먹고 들어가고, 낮 2시 조면 1시에 먹고 들어가고, 밤 10시 조면 9시에 저녁을 먹고 들어(이충각, 동일방직 전 지부장) 가는 것이 그들의 우울한 식습관이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런

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하면 몸이 망가지고 병들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자취방에 준비한 약병을 볼 때마다 조 화순은 한숨을 쉬곤 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병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월급만 많으면 되죠!”

장난스레 맞받아치는 한 여성 노동자의 대꾸에 조화



순도 지지 않고 응수했다.

“올리면 되지!”

“에이, 말도 안 돼요. 올려 달란다고 누가 올려 주나요?”

어린 노동자들은 의미심장하게 웃는 조화순의 눈을 외면하며 ‘피이’ 하고 돌아섰다. 그들은 고개를 흔들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정말 말도 안 돼…….” 그러나

얼마 후 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일- 임금 투쟁 -에 도전했다.

동일방직 노조 간부를 지낸 김지선(현 한국 여성의전화 조직위원장)은 조화순 운동의 특징을 ‘교회 운동의 틀을 벗어나 철저히 노동자 중심, 노동운동 주체를 주장하고 실천’ 하는 데서 찾았다. 노동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 그들은 먼저 자신이 노동자임을 인정해야 했다. 공장 다니는 게 창피해서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을 하고, ‘공순이’ 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월급의 반이 넘는 돈을 옷 사는 데 쓰며, 불만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들에게 조화순은 되풀이해서 말했다.

“과장이든 사장이든 똥 안 싸는 사람 있어? 그들도 너희처럼 똑같이 똥을 누는 사람일 뿐이야. 별 거 없어.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자신이 기업주나 지식인, 남성 노동자들과 똑같이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무섭게 달라졌다. 자신감은 그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옷매무새까지도’ 바뀌 놓았다. 조화순은 노동자들의 진짜 힘은 ‘행동’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들은 배운 만큼 행동했고, 행동하는 것만큼 성숙해졌다. 어느 날 그룹 토의 시간에 한 노동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툭툭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신나는 줄 아세요? 저는 동인천역 앞에서 양손을 펴두고 ‘나는 노동자야!’ 하고 외치고 싶을 지경이에요. 노동자라는 사실이 이제는 자랑스럽고 자신이 있어요.”

그 감동의 순간에 천하의 ‘조감동’이 눈물을 뿌리지 않을 재간은 없었을 것이다. 워낙 감동을 잘해서 붙여진 그의 ‘조감동’이란 별명은 김근태의 ‘김진지’라는 별명과 절묘한 대비를 이루며, 탄압으로 얼룩진 인천



1980년 산업선교회 실무자들과 함께 한 조화순 목사(왼쪽에서 두번째)

산선의 역사에 감로수 같이 시원한 웃음과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안겨 주곤 했다. 조화순에게 있어 사랑이란 감동을 주고받는 일이었고, 투쟁이란 그 감동이 불러들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다. 그는 작은 일에도 크게 감동했고, 그 감동의 울림을 자기 내부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적절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곤 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을 울렸던 그의 기도였다.

“백기완 선생님의 웅변과 쌍벽을 이룰 만한 것을 꼽으라면, 그건 조화순 목사님의 선동일 겁니다. 그야말로 죽어 가는 것을 살려 내고, 사람들 마음을 확확 뒤집어 놓는 생명력 있는 선동이에요. 이 양반의 선동이 극치를 이룰 때가 기도할 땡니다. 기도도 길지 않아요. 보통 목사들이 중언부언하듯이 천편일률적인 그런 말이 아니니까. 아주 짧은 몇 마디로 그 상황을 확확 건드리는데 아, 정말 대단하셔요.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유동우, 전 삼원섬유 노조 위원장)

그의 기도는 깊고 멀리 울린다

1972년 조화순의 어린 동지들이 노조를 장악했을 때, 사람들은 두 번 놀랐다. 평균 학력 '7학년'의 '무지한'

노동자들이 정부와 기업, 어용 노총의 비호 아래 노동 귀족 생활을 해 온 어용 집행부를 꺾었다는 사실에 한번, 그 집행부가 전원 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또 한번.

동일방직 노조는 한국 최초의 여성 지부장 주길자에 이어 이영숙, 이충각 등 내리 3대의 여성 지부장을 탄생시키면서 70년대의 간판급 민주노조로 빠르게 성장해 갔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임금, 노동 시간,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요구사항을 회사 측에 제시했다. 경찰들은 종종 조화순에게 묻곤 했다. “이상하게 조 목사님만 만나면 공순이가 서울대생으로 변하네. 대체 어떻게 했

길래 동일방직에만 다니면 다 그렇게 똑똑해져요?”

노사 관계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당차고 야무진 여성 간부들은 좀처럼 기업주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무엇도 조화순을 정점으로 한 이 맹량한 '딸들의 연대'를 깨뜨릴 수 없었다. 욕설, 협박, 매수, 부당 해고, 사표 강요, 부서 이동, 출근 정지, 남성 노동자들을 동원한 조직 파괴 공작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동원되었다.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78년 2월 21일에 있었던 풍물투척 테러 사건이었다. 대의원 선거가 예정된 이날 노조 사무실에 난입한 남성 노동자들이 40여 개의 투표함과 집기를 몽둥이로 때려 부수고, 선거하러 온 여성 노동자들에게 닥치는 대로 풍물을 퍼부은 야만적인 사건이었다. 분노한 여성 노동자들은 항의농성, 단식 등의 극한투쟁으로 맞섰으나, 정부 당국과 경찰, 노총의 지지를 등에 업은 회사 측은 주동자 124명의 집단해고를 감행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평정했다.

고 최종길 교수의 아우로, 78년 당시 중앙정보부 경기도지부 노사문제 담당관이었던 최종선은 2001년 '동일방직 사건에 대한 진술'이란 글에서 이 풍물 만행이

정부 당국과 공안기관, 기업주와 어용 노총의 합작품이었음을 여실히 증언하였다.

“똥물 투척사건이 일어나기 2주쯤 전인 2월 초였습니다.(중략) 인천 신포동 뒷골목의 배명여관에 거주자(거동 수상자)들이 집단으로 기거하며 들락날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중략) 이 두 사람은 그때서야 ‘정말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묻느냐’, ‘위(중앙정보부 2국을 지칭)에서 다 알고 있다’면서 체격이 작은 사람은 자신을 ‘전국섬유노조 조직국장 우중환’이라고, 체격이 큰 사람은 자신을 ‘조직행동대장 맹원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뭣하러 왔느냐’는 질문에는 ‘동일방직 노조 깨부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중략) 우중환과 맹원구 두 사람은 마치 대단한 특명이라도 받고 온 양 ‘서울 본부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최종선, 동일방직 사건에 대한 진술)



◀ 여성단체연합 회장으로 활동하던 무렵의 조화순 목사
▼ 순교교회에서 가진 은퇴식에서 교인들과 함께 (2000년 3월)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 조화순은 등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며 각종 기도회와 성명서 발표, 각계 인사의 항의방문 등을 조직해 냈다. 세계노동기구의 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도 외국에 그 활동상이 많이 알려진 조화순의 역할이 컸다. 그의 눈부신 활약으로 유신 정권은 국제적 망신이라는 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노동자들에게 조화순은 ‘한국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지만, 유신 정권과 공안 기관, 기업주와 한국 노총에게 그는 반드시 타도해야만 할 ‘공공의 적’이었다. 그들은 조화순을 ‘빨갱이’, ‘국제공산주의자’, ‘간첩’ 등으로 몰고 갔다. 반공 표어를 연상시키는 ‘때려잡자 조화순’이라는 구호는 한 의로운 목사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의 결정판이었다.

그러나 이중삼중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조화순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조화순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형사들이 짝 깔려 있는 인천 답동 천주교회에 수녀복 차림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그러나 1978년 11월 그는 마침내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74년 반도상사 노조 결성 과정에서 긴급조치 2호로 구속된 데 이어 두 번째 옥살이었다.

때려잡자 조화순

‘총이 있으면 죽이고도 싶었던’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간 뒤 긴급조치가 해제되자, 조화순은 감옥에서 풀려나왔다. 그러나 얼마 후인 80년 5월 17일 새벽,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다시 안기부로 끌려갔다. 영장도 없이 체포되어 안기부 지하실에 감금된 채 75일을 보낸 그는 광주항쟁이 무력으로 진압되고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고 난 후에야 그곳을 나올 수 있었다.

“75일 만에 나와 보니까 세상이 숨도 못 쉴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겁을 먹더라고. 하여간 나 혼자 방방 뛰었으니까. 혼자 총대 매고 성명서 읽고, 난 정치적인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세상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건 박정희 때보다 더한 거야. 성경에 ‘한 마리 마귀가 나가니까 일곱 마리 마귀가 들어온다.’는 구절이 있거든. 전두환이가 바로 이 일곱 마리 마귀 같은 거야. 그때 내가 생각이 달라졌어. 아, 정치 지도자만 바뀌어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중요한 건 민중이 바뀌어야 된다.”

조화순이 산업선교회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조화순이 선택한 곳은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부임했던 시흥군의 달월교회, 바로 조지 오글 목사와 처음으로 만났던 그곳이었다. 삼십대의 젊은 여자 목사에서 오십대의 중후한 나이가 되어 돌아온 조화순은 산업선교에서 새롭게 만난 민중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설교를 시작했다.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투쟁에도 적극 앞장섰으며, 지역의 관찮은 청년들을 묶어 사회과학을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지 않는 조화순의 목회 방식은 달월교회 교인들에게는 몹시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교인들은 점차 삶과 설교가 일치하는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래지 않아 이들은 조화순이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잡혀 들어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싸워주는 동지가 되었다.

격랑의 80년대도 숨 가쁘게 흘러갔다. 이미 ‘전국구 운동가’가 되어 버린 그는 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기독교사회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각종 단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지도자였고, 각종 시국 토론회나 집회의 앞장에서 반백의 머리를 휘날리며 특유의 선동력을 발휘하곤 했다.

여전히 바쁘게 활동하던 90년대 초의 어느 날, 문득 ‘함석헌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노동운동가가 거의 없던 70년대, 조화순은 유독이 눈에 띄는 존재였다. 그는 자연 함





석헌 선생 같은 이들의 사랑을 담뱃 받았다. 하루는 함 선생 댁에서 다녀가라는 전갈이 왔다. 중요한 일이 있구나 싶어, 조화순은 바쁜 일을 제쳐 놓고는 얼른 달려갔다.

“그 양반이 용산에 사셨어. 조그만 집에다가 마당도 자그마해. 워낙 꽃을 좋아하셔서 마당을 깊이 파 갖고 온실같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아, 아무 말도 없이 거기 들어가더니 화분을 하나 꺼내서 주는 거야.”

조화순은 어안이 병병해서 화분을 든 채 멍청히 서 있었다. 선생은 조화순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다.

“이거 죽이지 마. 가 봐.”

“아니, 선생님! 이거 주려고 저보고 여기까지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다른 말씀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근데 제발 일주일 안에 죽이지 마.”

조화순은 인천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궁시렁거렸다. ‘어휴, 노인네가 명령이 들었나. 기껏 바쁜 사람 불러다가는 좋은 말씀 하나도 안 해 주고, 이깟 화분이 다 뭐람.’

삶의 작은 화분 하나

새 주인의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 한 화초는 함 선생의 우려대로 일주일도 못 가 죽고 말았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조화순은 함석헌 선생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화초를 잘 키우려면 매일같이 물도 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각박한 생활의 작은 여유를 찾는 시간이라고나 할까. 여유……. 함 선생은 당시 조화순에게 필요한 것이 ‘여유’라고 본 것이다.

은퇴를 앞두고 인생의 후반전을 구상하던 조화순이 섰 뜻 ‘시골’과 ‘농사’를 떠올린 것은 바로 그 날의 기억 때문이 아니었을까.

“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단 한 달이라도 시골에 가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 봤으면 해. 옛날에 내가 지금 같은 마음으로 나를 보았더라면, 좀 더 완속하고 유연하게 했을텐데. 그때 나는 너무 강렬하게만 했다고. 더 강렬해지지 못 하는 것을 늘 부끄럽게 생각했지. 나쁘다는 게 아니야.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만이 최고고, 자기 운동만이 최고라는 아집에 빠지기 쉽다는 거지.”

조 화 순

- 1934년 4월 25일 인천 도원동에서 출생
- 1954~1956년 용인군 남사면 남사 국민학교 교사
- 1962년 감리교신학대학 졸업
- 1966년 목사 안수 받음
- 1966~1983년 인천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총무)
- 1970~1984년 한국사회선교위원회 위원(신·구교 연합)
- 1976년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
- 1983 달월교회 담임
- 1986~1988년 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촌분과 위원장
- 1987~1991년 전국감리교여교역자회 회장
- 1987~1989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회장
- 1989~1991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 1991년 기독교사회운동연합 공동의장
- 1991년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중앙위원
- 1992년 여성단체연합 회장
- 1995년 은퇴 후 강원도 봉평에 거주



김 기 선

1965년 서울 출생.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저는 열네 살 선영이예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대의 불꽃〉 중 『전태일』, 『김진수』, 『최종건』 편 발표. 현재 격월간 『삶이 보이는 창』의 기획위원으로 활동.